contents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신앙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9:31)

매세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 김상덕 목사 3

선교지 소식
100페리 선물 / 황원도 선교사 4

예친탈방
미니는 724예찬을 좋아해 / 손신형 집사 6

신앙간증
목숨걸고 기도에 전념하는... / 김은희 집사 8

웰빙 건강칼럼
산모와 영양 그리고 태교 / 황진영 집사 9

선나공동체를 찾아서
21세기를 밝히는 선나의 빛 / 윤정현 전도사 10

주일학교
부흥은 기도의 불씨로부터 / 박소연 사모 12

청년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Survival / 홍애진 자매 13

이철승 목사의 가족칼럼
가정예도 팀워이 필요합니다. / 이철승 목사 14

성경상식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15

책읽는 즐거움 / 가게사랑 16

예배시간안내

주일1부예배	오 전 7:00	영 애 부	오 전 9:30
주일2부예배	오 전 9:20	유 치 부	오 전 11:00
주일3부예배	오 전 11:10	유 년 부	오 전 11:00
주일4부예배	오 후 2:00	초 등 부	오 전 11:00
주일5부예배	오 후 2:00	중 등 부	오 전 11:00
수요기도회	오 후 7:30	고 등 부	오 전 11:00
새벽기도회	새 벽 5:00	청년2부	오 후 1:30
		청년3부	오 후 1:30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일교회**
NAE-IL PRESBYTERIAN CHURCH
704-190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동 160-3
TEL. (053) 587-2121-4 FAX. (053) 587-2124
http://www.naeil.or.kr.

담임목사 메시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당회장 김상덕 목사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는 세대가 있는 동안에는 나라가 쇠퇴하지 않지만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면 곧 쇠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지금은 기억에 사라지고 있지만 저희들 학교에 다닐 때 기억나는 것은 '전후' (戰後)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전후 세대' 니 '전후 문학' 이니 '전후 작가' 니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비단 이 말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태어난 전후세대를 '베이비붐 제네레이션' 또는 '부머 세대' 라고 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전쟁을 겪은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와는 선을 그을 만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구약 사사기의 시작이 바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시작되어집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전후 세대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삿 2:10절에 보면 첫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Living Bible에는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아니했다" 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는 하나님을 믿거나 섬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전후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뿐만이 아니라 절기 또는 큰 역사를 나타내실 때 반드시 자녀들에게 기트치거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세대는 자신들은 삿 2: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하나님의 큰일을 보았고 여호와를 섬겼지마는 그 자손들에게는 가르쳐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는 당대에서 끝나서는 안됩니다. 꼭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세대가 되어야만 진정한 신앙의 세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합니다(삿3:1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란 고난을 모르는 세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보지 못한 세대를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는 세대를 말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섬기지 아니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미 국 의 예 를 들 면 전 후 세 대 (Boomer generation)의 특징은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었습니다. 그것은 중산층이 되어 잘사는 것, 사회적 안정된 지위와 출세, 이상적 가정의 육신적 행복입니다. 이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지자 이들은 서서히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퓨리턴의 후예들로서 그야말로 개척신앙 정신으로 일구어 놓은 미국을 젊은 케네디 대통령의 개혁구호 아래 잘사는 미국은 되었지마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미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역사를 모르니 그 고난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며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현실을 주시해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점도가 아니라 만연하고 있습니다. 부모세대가 이루어놓은 물질적 풍요로 말미암은 신앙생활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고난의 역사를 모르고 잘 살게 되니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Again 1907년을 앞두고 한국교회사에 하향곡선을 그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수난의 역사 속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전후 세대에도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지켜온 순교정신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세대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

100원짜리 선물

내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이곳에는 해수면보다 800m가 낮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큰 지도로 보면 움푹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곳은 사막과 광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나는 곳을 따라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덥습니다. 여름이 되면 보통 40도를 넘습니다. 그곳은 조상들이 물려준 옛 성과 여러 문화재가 있어서 해마다 관광객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가난하기 때문에 그곳을 벗어나 보지도 못한 채 살아갑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며 세상을 보는 것이지요.

따가운 햇살 아래 아이들이 놀고 있다가 관광객을 실은 버스가 도착하면 몰려와 각종 물건을 팔려고 매달립니다. 관광객은 그런 아이들과 사진을 찍고는 몇 개의 물건을 팔아주기도 하지만 보통은 귀찮아하며 잠시 둘러보았다가 떠나갑니다. 그럼 아이들도 기회를 놓칠세라 한 개라도 더 팔기 위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렇게 번 돈은 용돈으로도 쓰이지만 엄마에게 그대로 바쳐져 생활비로 사용됩니다.

어느 한국인 관광객들이 왔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둘러보다가 떠나가려는데 아이들이 몰려와 100원짜리 빵을 팔겠다고 너도나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애써 외면하고 버스가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관광객에게 "이것은 선물이에요." 라고 웃으며 건네주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너도나도 100원이라도 벌겠다고 아웅다웅하는데 그 아이는 선물로 건넨 것입니다. 100원은 시골에서 작은 돈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큰 돈도 아닙니다. 그 관광객은 선물이라고 준 그 아이를 한참을 보더니 이름과 연락처 등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이곳 사역자에게 그 아이를 부탁하며 아이가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갖고 있던 100원짜리 빵을 선물로 주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100원짜리 작은 선물이 그 사람에게 큰 감동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따갑고 메마른 광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따가운 햇볕 아래에서 100원이라도 벌겠다는 바둥거리는 아이들에게 주고받은 선물이 무엇이며 무슨 감동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병이어(막 6:30-44) 이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의 보잘 것 없는 음식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장정 5,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히 거두었습니다. 비록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이라도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서 200 데나리온(한 사람의 8개월 정도의 노동임금)을 구하며 그만큼의 음식을 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였지만 예수님은 한 아이의 작은 음식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누군가 200 데나리온이나 하는 큰 금액을 예수님께 드려서 많은 사람들로 먹게 한다면 그건 큰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내가 가진 작은 오병이어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큰 믿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생각지도 못한 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작은 것이 무엇일까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행복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것은 큰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도 있습니다. 만일 큰 선물을 받는다면 고마움과 아울러 부담스러움도 함께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을 받는다면 고마움과 아울러 진잔한 감동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과 친해지게 하며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합니다. 사실 작은 것은 큰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웃에게 이런 마음과 관심이 있습니까?

이제 덥고 지치게 하는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생명력이 강한 계절입니다. 자연이 왕성하게 자라나듯 열정을 품고 최선을 다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저희는 이곳에 와서 가장 기쁜 며칠을 보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현지인 여동생이 귀여운 딸을 낳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기대한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첫 아이인지라 마냥 즐거워합니다. 아기의 심장이 힘있게 뛰고 우는 소리가 큰 것을 보니 아기가 아주 건강한 것 같다며 자랑을 합니다. 남편의 가족들도 딸이 적어서인지 더욱 좋아합니다. 아기를 한 번씩 보러니 아기가 아빠를 닮아서 예쁘다고 합니다. 보통 딸은 엄마를 닮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남편은 아기에게 저를 '원도 아빠' 라고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저에게도 딸이 하나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안부를 물어볼 때도 내 딸도 잘 있는지 물어봅니다. 아기의 이름은 '희아' (기쁨)로 '새벽' 이라는 뜻입니다. 산모가 밤새 산통을 느끼다가 새벽에 낳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잠시 들렀다가 아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한 달 전에 아기를 낳은 언니가 앓고기를 많이 먹어 뚱뚱하게 몸조리를 잘 했다며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딸은 뚱뚱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엄마와 날씬해지기를 원하는 딸 사이에 작은 세대 차이를 느끼게 합니다. 이 아이는 저희에게도 큰 기쁨이 됩니다.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안아보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기의 이름처럼 이 가정에 복음의 새벽이 밝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아기의 엄마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복음에 열정을 품기를, 이슬람교도인 아기의 아빠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일의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황원도, 최옥토, 상원, 상현 드림

미녀는 724 예친을 좋아해

724예친 손신향 집사

어느새 찾아온 더위로 지치기 쉬운 계절이지만 주님의 사랑 속에서 자라는 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항상 행복한 724 예친입니다.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고운 사람들이 모여 기쁜 일, 슬픈 일을 서로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예친이지요. 모두들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724 예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마음으로 예친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정인자 순장님을 소개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순장의 직분을 맡았지만 늘 큰 언니 같은 마음으로 예친원들을 돌보며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주님의 일을 섬기시는 남편 이성훈 집사님과 은총이와 예찬이의 멋진 엄마로 모범적인 가정을 가꾸어 가십니다. 특히 예찬이는 우리 예친에서 제일 큰 형 노릇을 하면서 엄마를 돕고 있답니다. 순장 집사님을 닮아서인지 우리 예친 모두는 푸근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것도 자랑입니다.

예쁜 두 딸 윤주와 윤화의 엄마인 조치자 집사님은 직장생활로 바쁘시지만 예친 모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친의 부순장이신 최성희 성도님은 활달하고 밝은 성격으로 예친 모임은 물론이고 4교구 행사 때마다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신앙생활 회복과 아들 정규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또 능력있는 과의 교사이기도 합니다. 예친 모임 때마다 차량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히를부터 든헤스러운 김성영 집사님은 우리 예친의 회계로 '톡' 소리나는 살림꾼입니다. 경현이와 기현이 두 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성격으로 맡은 일에 성실하며 예인 일에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남편과 주말부부를 하고 있지만 가정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김정애 성도님은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당차고 야무진 새댁입니다. 귀여운 단비와 함께 열심히 예친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순장님이나 예친원들에게 물으며 교회와 성경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크게 쓰실 우리 예친의 준비된 일꾼입니다.

정정희 성도님은 로이모스를 통해 우리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청년시절 만났던 주님을 다시 체험하기를 소망하고 있으며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격으로 예친 모임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보너스로 멋진 한 결이까지 저희 예친이 되었답니다.

좌로부터 손신향 집사, 정정희 성도, 김성영 집사, 정인자 집사, 최성희 성도

끝으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친원들의 뜨거운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 4년 만에 아들 찬민이를 얻었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에 푹 빠져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가 되길 소망하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며 예친 모임과 교회 일에 힘쓴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항상 아이와 함께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우리 724 예친원들은 늘 행복하답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모자라는 모습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임과 함께하는 724 예친이 있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두 사랑합니다. (*)

"목숨 걸고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 교회가 좋아요!"

624예친 김은희b 집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저의 삶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지금껏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 33년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흔적이 아직도 묻어있지 않고, 형식과 지식만 갖춘 저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내 삶 속에 드러난 체험을 부최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4년 7월 경기도 과천에서 대구로 올 때 내일교회에 정착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새벽기도에 나오는 사람이 너무 적어 수적으로는 제가 다니던 과천교회에서보단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목숨 걸고 기도에 전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내일교회에 오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셨던 집사님들. 그때 723예친 대순장님은 지금 저희 3교구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밤없이 저의 아픔과 생각들을 경청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님의 우울증의 병세가 너무 깊어 암에 걸 가까운 상황이 되어가면서 외아들인 남편과 저는 힘겨워했습니다. 그러기에 지난 2005년 "사도행전 교회" 란 목표는 너무 신선하고, 꿈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암송대회에 나간 경험은 너무나 감별했습니다. 낡아 헛소게 된 성경의 사도행전 낵 장을 찢어서 꼬깃꼬깃 주머니에 넣고선, 어머님 병원을 찾아가는 버스 안에서, 설거지하면서, 혹은 새벽기도에 갔다 오는 길에서 그 말씀들을 되새기면서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그 복된 말씀은 우울하고 변덕스럽고 딱딱하고 낮은 자존감이었던 저의 마음에 기쁨과 자신감으로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낙심이 될 때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외울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을 떠올려보곤 합니다.

올해도 말씀을 암송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참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모든 시험과 유혹에 몇 번이고 망설이며, 큰 아이가 유치원에 가지 않으려고 아침마다 때를 쓰고, 아이 셋이 한꺼번에 수두를 앓기도 하면서, 결국 요한일서 2장 17절까지밖에 암송하지 못해 예선에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말씀 한 절한 절을 암송하려던 저를 방해하려던 사단의 유혹에 지고 말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이기고 요한일서를 모두 암송하신 박신미 집사님과 하지숙 집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임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교회로 인해 저에게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참 많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배우게 한 곳, 개발과정을 통해 나에게 잘라내야 할 것들을 보게 한 곳, 그리고 열정 있는 담임목사님의 가르침과 측복으로 내 영이 소생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내일교회는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장님들의 희생과 기도,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624예친을 섬겼던 김은정 권사님과 현재의 김자경 사모님, 그리고 남편 예친(714예친)의 이성훈 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새벽마다 5개월 난 아기를 봐주는 사랑과 배려가 충만한 우리 남편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

임신과 영양 그리고 태교

황진영 집사 (황진영 산부인과 원장)

임신을 하면 잘 먹어야 한다는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 임신 진단과 더불어 입덧이 시작되면 주위 분들은 큰 걱정이 생깁니다. 그러나 임신 후 3개월 까지는 체중이 감소되기도 하나 태아에게는 영향이 없으니 이 시기를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덧은 속이 비면 더 심해지므로 조금씩 자주 먹도록 하고 수분, 비타민, 무기질 등이 부족해지기 쉬우므로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6개월 이후에는 태아의 발육이 활발한 시기이므로 모체의 영양섭취에 따라 태아의 발육은 큰 영향을 받습니다. 임신 중 잘 드시면 건강하고 똑똑한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임신 9개월 무렵이 되면 태아의 머리가 위를 압박해 소화불량이 되기 쉬워 소화가 잘 되는 것으로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요즘 산모들은 임신 후에는 너무 잘 먹어서 과도하게 체중이 증가되는 산모가 많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네덜란드 임산부 임상보고를 보면 산모의 음식섭취가 제한되더라도 신생아 체중은 평균적으로 250gm만 감소하였습니다. 임산부 체중 증가가 과도한 경우 과 체중아를 출산한다든지, 제왕절개 빈도가 증가한다든지, 임신 전자간증(부종 때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권장되는 체중증가는 정상체중 여성의 경우 12kg-16kg정도로 봅니다.

대부분의 영양성분은 일반 식사로 보충이 되지만 철분은 따로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5개월부터는 하루 30mg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산부인과에서는 임산부들이 "염산을 꼭 먹어야 한다" 고 이야기합니다. 염산은 비타민 B의 일종입니다. 염산은 신경관 결손 태아의 기형력, 당뇨병 산모, 간질 발작으로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임신 전 1개월부터 임신 3개월까지는 염산 4mg을 매일 복용하도록 권합니다. 미국에서는 가임여성에게 임신 3개월 전부터 매일 0.4mg을 복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은 염산이 많이 들어있는 잎이 푸른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신 시에 지켜야 할 기초적인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몸과 마음이 안정되게 합니다.

둘째,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한 운동을 합니다.

셋째, 피로한 일은 삼가야 합니다. 특히 유산이나 조산을 경험하였던 분들은 더욱 조심하여야 합니다.

넷째, 임신된 자궁에 힘이 들어가는 일은 삼갑니다. 즉 구부리고 있거나, 특히 하복부에 무리한 힘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째, 몸을 항상 친절히 움직여야 합니다. 여섯째, 항상 전신을 따뜻하게 합니다. 추우면 자궁 등의 신체조직에 수축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째 요한은 어머니 엘리사벳의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 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눅 1:15).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고 안정된, 성령 충만한 어머님이 되시는 것이 가장 큰 태교는 아닐런지요. (*)

21세기를 밝히는 '선나의 빛'

윤정헌 전도사 (선나봉사대 시역담당)

20세기 대한민국의 역사 중에서 제일 가치 있는 역사적 사건을 말할 때 대부분 동의하는 사건 중 하나는 3.1 운동이고,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평양대부흥운동일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평양대부흥운동은 1907년에 일어난 사건이고, 3.1 운동은 1919년에 일어난 민족 대 각성운동이었습니다. 평양대부흥운동의 실제적 사건의 시발점은 1903년에 일어난 원산부흥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회개운동이며 그 당시 첨단 선진국 중의 하나인 캐나다의 의료 선교사로 내한한 하디의 진심어린 참회와 그 당시 최고의 빈민국인 조선인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회복운동이며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헌신을 다짐하는 성령운동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20대 젊은 의사의 장미빛 인생이 보장되는 삶을 버리고, 미개하고 너무나 가난한 아시아의 이름도 없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의료선교사로 섬겼지만 아무 결실도 없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자존심이라든지 그만의 프라이버시에서 오는 자괴감은 너무나 비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그의 자존심과 그의 지식과 그의 의사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선교사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았지만 그것이 가난한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전파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었던 것이고, 이 운동이 평양대부흥운동으로 이어져 전국적인 회개 운동, 각성운동, 대 사회운동으로 확대되어 전 민족의 복음화 운동의 중심 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평양대부흥운동은 교회사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 조선의 사회통념상 아무 문제가 없었던 많은 것들이 엄청난 문제로 다가왔기에 그 구습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행해졌던 그 많은 행동의 동력도 바로 이 운동에서 이루어 졌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시대의 변혁의 주체는 교회가 되었고, 그 당시 교회는 사회를 이끌어 가는 위대한 방주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당시 지식층에서는 교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이 있었고, 일반 민중들은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배울 수 있었으며, 우물 안 개구리 시각을 벗어버리고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적 갈등의 해결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평양대부흥운동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는 없지만 회개와 변화의 사건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운동의 범위가 교회로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도덕적 회복과 구습으로부터의 개혁, 지적 갈등으로부터 충만함을 얻는 사건이며 교회의 부흥운동이 사회의 개혁운동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평양대부흥의운동의 영향력은 12년 후에 나타나는 1919년 3.1 운동으로 또다시 나타나며 우리

민족 역사상 교회가 우리의 역사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종이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인해 왕위를 아들인 순종에게 물려주고 12년간 가택연금을 당하고 돌아가시자 나라 없는 민족의 설움이 고종의 장례식장에서 표출되며 3월 2일 주일날을 당하여 거국적으로 만세운동계획을 세웠지만 민족지도자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기에 우리는 주일성수의 우를 범할 수 없게 그 날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여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자긍심을 준 만세운동이 3월1일 토요일로 변경되었고, 주일성수에 고수한 우리 민음의 선조들의 바람대로 땅은 전 세계가 놀라는 엄청난 기적을 이루어 어넌 전혀 다른 민족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날짜를 바꾼 1919년 3월1일 토요일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근 1년의 기간동안 무수히 일어났던 만세운동이고 그 중심에는 항상 교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구의 만세 운동은 남산교회, 서문교회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남산교회 조사의 외침으로 대구의 만세운동이 시작되었고 그 운동이 끝난 후 대구의 만세운동 때에 감옥에 갔다온 독립투사 중 85%가 교인인 것은 지금 신앙생활에 영위하는 우리들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세기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20세기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3.1 운동이 교회에 의해 날까지 바꾼 거룩한 운동이었고, 교가 그 시대에 끼친 영향력은 말로 표현할 가 없었습니다. 우리 내일교회는 선나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들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만 이 조그마한 선나의 빛이 21세기를 밝히는 거룩한 빛이 기를 소망합니다. (*)

부흥은 기도의 불씨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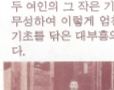
영아부 충성반 박소연 사모

지난 번 저희 영아부에서는 평양대부흥운동에 관한 영상물을 보았습니다. 말로만 들어왔던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강력한 기름부으심의 역사와 거기에 나타난 순교적인 신앙 열정과 헌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힘이 있었는지 새삼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호흡하고 있는 이 땅에, 100여 년 전 너무나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향하여 목숨을 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초창기 한국교회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사람 앞에 잘 준비되고, 또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20대의 젊은 나이에 동방에 알려져 있지 않은 이 작은 나라 조선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사역을 준비해 왔던,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 있었다.

그 당시 세계에 잘 알려져 있지도 않은 나라였지만, 바로 우리나라를 통해 마지막 세기 선교의 기치를 드높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었던 것이다. 젊은 피와 땀을 흘려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선교사들의 열심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 것이며, 나 역시 나의 가장 귀한 때,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

영상물을 보면서 가슴에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그 엄청난 부흥의 역사도 처음에는 연약한 두 여인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었다. 그 시작은 참으로 미약하였지만, 그들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나중에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바로 그들의 작은 기도모임에서부터 출발했던 것이다. 주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씨는 보기에 참으로 작고 이것으로 뭐가 되기나 할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 작은 씨가 좋은 밭에 뿌려져 자라 열매를 맺고 무성하여 나중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 여인의 그 작은 기도모임이 나중에는 자라 무성하여 이렇게 엄청난 한국교회의 영적인 기초를 닦은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다.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드리는 작은 기도, 조그만 사랑의 섬김이 하나님 보실 때는 비록 작은 하나의 씨앗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는 100배의 엄청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 작은 기도와 섬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며 마음을 다지게 되었다. 가정주부로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엄마로서, 비록 작지만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섬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초대 한국교회에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정, 우리 영아부, 우리 내일교회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도 힘 있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을 누리는 Survival

홍애진 자매(청년2부 13기)

청년의 때에 가장 고민하는 문제들을 꼽으라면 무엇보다도 직장과 결혼 문제를 빼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이 서른…, 직장 생활 4년차…, 나 역시 직장생활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고 싶고, 아름답게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진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가진 청년 중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성공적인 직장 생활이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 직장을 구할 때는 원하는 곳에서 일하게만 된다면 정말이지 멋지게, 골내주게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겁도 없이 감히 그런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막상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첫 해는 마치 예고 없이 매 맞는 기분으로 좌충우돌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말씀도 기도도 모두 잊어버린 채.

그러면서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는 단순히 업무로 인한 어려움 보다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분별하게 살아가는 문제가 점점 더 큰 고민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이지만 때로는 정직하게 행한 결과가 오히려 나에게 아픔과 손해로 돌아올 때, 어디까지가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할 한계인지 갈등되기도 하고, 정말 제대로 가는 길일까? 불안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이러 저러한 일과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힘겨워며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있어 '신앙 Survival' 이라는 이번 강의는 제목부터 큰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일터를 지켜 오신 경력만으로도 그저 존경스럽기만 한 김현국 집사님과 한학근 장로님의 삶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또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의 원칙을 굽히지 않고, 묵묵히 그 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직장 문제' 와 동시에 '결혼 문제' 역시 나를 압박(?)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학원기가 되면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하는 일처럼, 한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만드는 일도 자연스럽게 진행될 거란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선 나에게 이 상글의 시간을 연장시키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혜로운 상글의 삶과 결혼생활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삶에 대해 진솔하게 나누어 주신 김혜란 집사님과 강성에 집사님의 강의는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지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홀로 만나며 그 분과 더욱 친밀함을 맘껏 누리는 것! 'Survival' 단지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삶이 아닌, 특별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 생명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조용히 침묵하심으로 그 고통을 감내하셨던 주님, 그렇지만 진정한 승리를 하셨던 주님의 삶처럼 정직하게 인내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작은 나를 통해 하늘 소망이 이 땅에 조금씩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

이철승 목사의 가족칼럼

"가정은 팀웍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철승 교육목사(청년1부 교역자)

이제 월드컵의 계절입니다. 어디가나 월드컵 이야기뿐입니다. 거리에는 아이들도 붉은 옷을 입고 다니고 머리에도, 목에도 붉은 치장을 하여 온통 월드컵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1명이 하나가 되는 팀웍(teamwork)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아트사커(art soccer)를 자랑하는 프랑스는 완벽할 정도의 기술을 가진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세계가 그들을 주목했으나 그들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각자의 개인기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했었지만 팀웍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는 기술적으로 부족했었지만 서로 유기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4강의 큰일을 이루었습니다. 한마디로 팀웍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월드컵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기막힌 팀웍을 구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모든 일을 하지 않고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이라는 사람들을 세워 이들 중간 지도자와 팀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그에게는 갈렙과 같은 좋은 동역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기에 필요한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셨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열두 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팀을 이루셨습니다. 바울과 누가 그리고 실라는 서로 마음을 모아서 아름다운 팀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고 할 만큼 좋은 팀웍을 이루어서 주님의 일을 성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팀웍의 정신은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간에도 팀웍이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협력해야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점점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자녀 양육이나 가사일로 인해 서로간의 마찰이 빈번해지는 시대입니다 성경적인 팀웍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바른 팀웍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공동의 역할에 대해서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모든 일을 아내의 역할로만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 전통을 살펴보면, 여성들은 집안일에만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이상적인 여성은 가정 일에만 제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에도 관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사기도 하고, 포도원을 만들고, 시장에서 자신들이 만든 옷이나 다른 여러 가지 제품들을 팔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남편들이 가정 밖의 일과 가정 안의 일로 구분해서 가정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가정에서 팀을 이루어서 일정한 위치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행복은 팀웍에 달려 있습니다. 서로의 위치에서 서로가 지킨 역할과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하나가 되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행하실 일을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알아두면 좋은 성경 상식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성경을 읽다보면 이해하기 힘든 말이나 모르는 말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 속의 모르는 상황과 단어들에 대한 풀이를 통해 성경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그 의미에 대해 알 수 있게 돕는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교역자나 내일의 꿈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 3:5)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발은 사람의 역사만큼이나 오래 된 물건입니다. 발을 보호해 주고, 걷기 편하게 도와주는 신발은 신는 것도 그렇지만 벗는 것 또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신발을 벗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고대 근동에서는 존경과 경배의 표시로 신을 벗었습니다.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때도 신을 벗어 예의를 표시했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땅을 밟은 신은 더러운 것으로 거룩한 곳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으며 여호수아가 발에서 신을 벗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을 벗는 일을 일상생활 속에서 상징적인 의식으로 행했습니다. 상을 당했더거나 슬픔의 표시로 신을 벗었습니다. 또한 자식 없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않겠다는 표시로 신을 벗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떤 것을 투르거나 상거래를 성립시키는 표시로 상품을 산 사람의 신을 판 사람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신발을 벗는 첫 번째 의미는 존경과 경배의 표시입니다.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때도 신을 벗어 예의를 표시하곤 했습니다. 신발을 벗는 또 다른 의미는 슬픔의 표시, 상거래를 성립시키는 표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의미의 신발을 벗는 장면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 책 읽는 즐거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 내려놓음

♠저 자 : 이용규 ♠출판사 : 규장

세상 집리는 우리가 내려놓으면 모두 빼앗긴다고 유혹하지만, 하늘 집리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온전한 우리 것이 된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내 것' 처럼 보이지만 남김없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힘겹게 쌓아올린 명예, 꼭 움켜쥔 재물, 미래의 불안과 생명의 위협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진정한 쉼과 참된 평안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명예도, 미래의 보장도, 가족의 안전도, 심지어 헌신의 열매까지도 "너는 그저 내려놓으라" 는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인도하심 따라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버드 박사학위를 받고 몽골 선교사로 헌신한 이용규 교수(몽골국제대학교)는 진정한 영적 가치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사모하는 참된 크리스천은 헛된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나라를 향해 가는 믿음의 순례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

✿ 가게사랑

소리샘 보청기

염유아에서부터 성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귀속형, 귀걸이형 보청기, 초소형 고막형 Tympanette 보청기의 취급과 다양한 최신 의료기구 및 첨단이과장비를 보유하여 정확한 검사결과로 청각장애인을 위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아날로그 기술과 진보된 디지털 기술의 만남으로 탄생된 스타키 보청기로 경도난청부터 심도난청까지 저렴하고 탁월한 성능의 디지털 보청기를 경험하세요.

'내일의 꿈 6월호' 를 지참하고 방문하신 모든 분들께는 무료 청력검사 및 보청기 구입시 정가의 2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512예친 유승철 집사 드림

2006년 6월 9권 6호
선을 베풀고 나누는 선나교회

내일의 꿈

6월은 농촌교회의 달

구례읍내 경강한 내일교회